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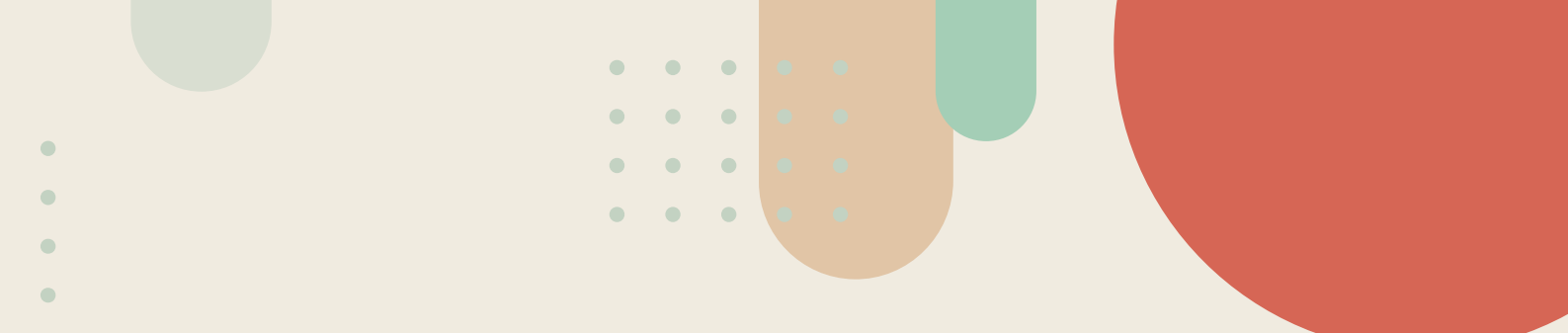
전문학회 세션

[한국노인복지학회]

당사자 관점과
문화적 다양성

좌장

제주국제대학교
고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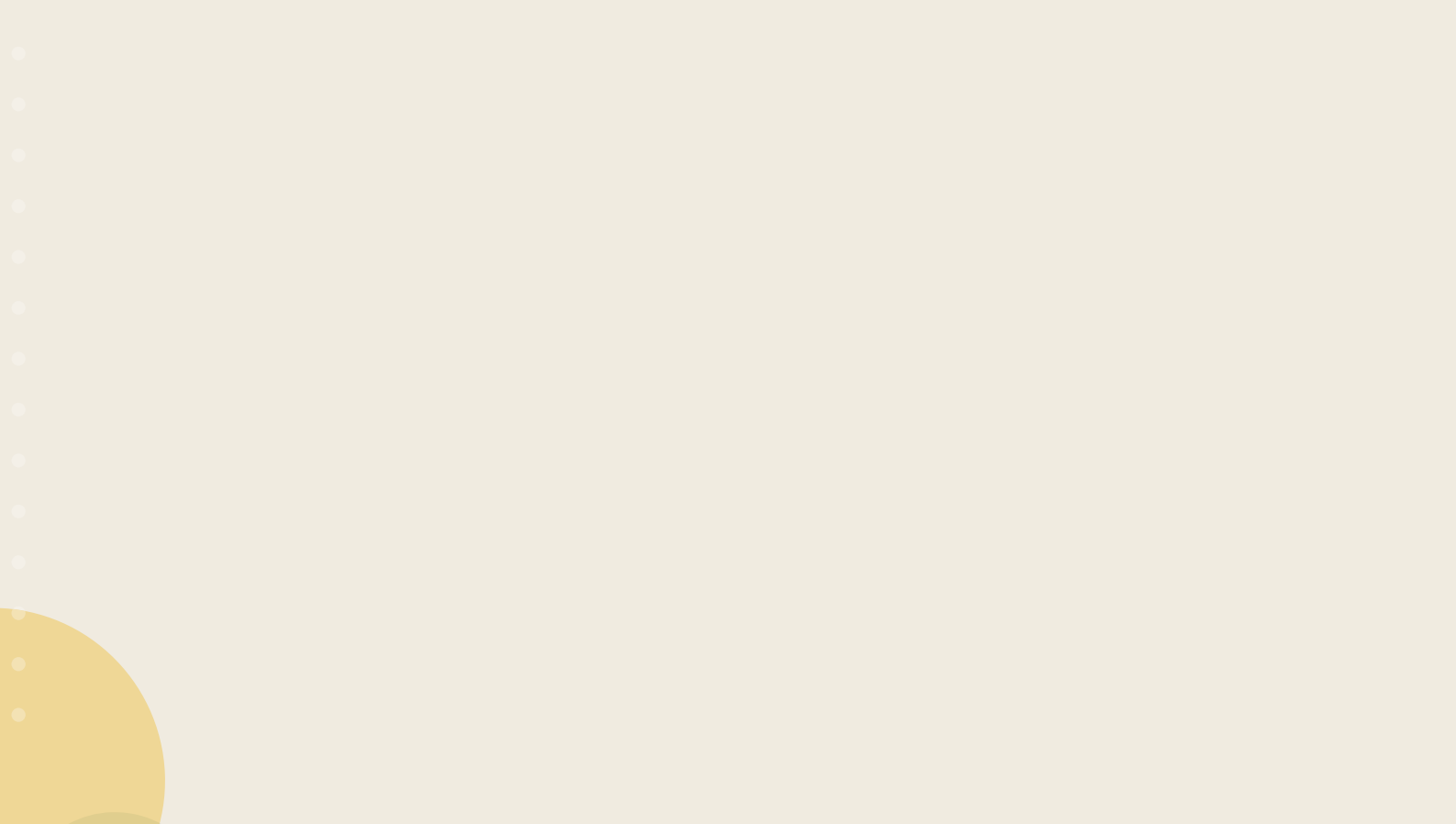


전문학회 세션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당사자 관점에서의
관계변화와 사회복지적 함의
: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고정은(경희사이버대)



2023 한국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한국노인복지학회 (10. 21)

노인당사자 관점에서의 관계변화와 사회복지적 함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고정은, MSW, Ph.D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목 차

- 들어가며
- 노인과 가족: 구조적 변화
- 노인과 가족: 기능적 변화
- 부부관계변화
- 자녀와의 관계변화
- 손자녀와의 관계변화
- 사회복지적 함의

들어가며



우리나라 노인의 현주소

- 2025년도 고령인구비율(20%) → 2050년도(40%)¹
- 노인의 어려움 → 모두의 어려움
- 우리나라 노인의 현주소
 - 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율 1위
 - 2020년 국내 65세 이상 성인 3392명 자살²
 -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³
 - 2021년 전체 우울증 환자 중 60대: 전체의 18.5%(15만 9,845명)로 가장 많음

출처: ¹ 통계청(2022) 2022년 고령자통계² 보건복지부(2020) 자살예방백서, ³ 보건복지부(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사진: 뉴스포스트 강대호기자

1. 노인과 가족: 구조적 변화¹

- 가구형태 변화
 - 노인단독/부부 가구 ('11) 68.1% → ('21) 78.2% [증가]
 - 독거노인 ('22) 188만명 → ('35) 346만명, 85세 이상 노인('22) 94만명 → ('35) 195만명 [증가]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11) 27.3% → ('20) 20.1% (기혼자녀(9%), 기혼+미혼자녀(.3%)) [감소]
-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
 - 노인의 독립성 및 욕구(62%): 개인(부부)생활을 위해, 거주지역 유지, 경제적 능력, 건강
-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 기혼자녀와 동거: 노인의 필요성(48%), 자녀의 필요성(27.1%), 규범적 당위성(24.9%)
 - 미혼자녀와 동거: 규범적 당위성(38.8%), 자녀의 필요성(34%), 노인의 필요성(27.1%)

출처: ¹ 이운경, 김세진, 황남희,....,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노인과 가족: 기능적 변화

- 비동거자녀와의 접촉¹
 - 주1회 이상: 왕래 ('11) 48.3% → ('20) 16.9%, 연락 ('11) 83.6% → ('20) 63.5% [감소]
 - 연1회 혹은 없음: 왕래 ('11) 5.2% → ('20) 17.9%, 연락 ('11) 1.9% → ('20) 3.7% [증가]
- 가족 내 호혜적 관계²
 - 배우자 → 동거자녀 → 비동거자녀 순 유지
 - 노인돌봄의 탈가족화,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돌봄 기대증가
- 노후 생활비 마련¹
 - 본인(40.6%), 본인과 자녀(5.3%), 자녀 (4.7%)
 - 본인+국가 사회보장제도(27%), 국가 사회보장제도(22.3%)

출처: ¹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² 김세진, 이선희(2022),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3. 부부관계 변화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혼인상태¹
 - 배우자 있음(64.4%), 사별(27.5%), 이혼(6.3%), 미혼(1.8%)
- (과거) 백년해로 → (현대) 처음이자 유일한 배우자와 함께 노년기를 보내는 성인들의 비율 감소
 - 이혼, 재혼, 사실혼, 동거, 독신, 비혼 로맨틱 파트너십 등 증가. 노인들의 가족 생활이 이전 세대와는 다름
 - 황혼이혼, 졸혼, 황혼재혼, 황혼동거 등 신어 등장

출처: ¹ 경인지방통계청(2022) 2022년도 통계로 보는 수도권고령자

3. 부부관계 변화

- 노인의 재혼¹
 - 수도권 65세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약 1.5배, 2.4배 증가 ('11 vs. '21)
 - 75세 이상의 초고령재혼 ('10) 419명 → ('21) 1,092명 [2.6배 증가]
 - ('20)초고령 재혼연령 남성 97.8세, 여성 96.2세
- 비친족 가족
 - 가족처럼 함께 살지만 가족은 아닌 관계
 - 사실혼, 동거, 파트너십
 - 국가통계 조사에 포함됨
 - 2023년 4월 생활동반자법 발의

출처: ¹통계청(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3. 부부관계 변화

- 전체 인구의 이혼과 재혼 연령 상승¹
 - 남성의 평균이혼연령 ('12) 45.88세→ ('22) 49.91세, 여성 ('12) 42.0세→ ('22) 46.62세
 - 남자의 평균재혼연령 ('12) 46.62세→ ('22) 51.02세, 여성 ('12) 41.91세→ ('22) 46.79세
- 노년층의 재혼 증가²
 - ('21) 수도권의 전체 재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40.3% 감소
 - 수도권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약 1.5배, 2.4배 증가
- 부부만족도³
 - 성별로는 남성(68.9%)이 여성(48.8%)보다 20.1%p 높게 나타남(2020)
 - 2022년도 남성(71%) 여성(57.4%)⁴

출처: ¹통계청(2023) 2022년 혼인·이혼 통계, ²통계청(2022),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³통계청(2021), 사회조사 2020, ⁴KOSIS, 사회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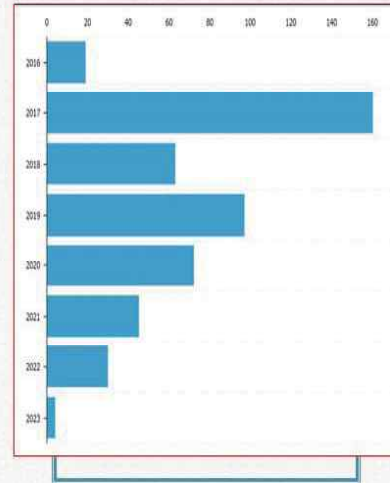
3. 부부관계 변화



YTN뉴스(2017)
41:01:21



주요일간지, 방송사 결혼 연관어(2016-2023)
빅카인즈 분석



연도별 기사건수(2016-2023) 빅카인즈 분석

3. 부부관계 변화

-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 ('12) 전체 이혼 중 26.5% → ('22) 36.7% 로 증가¹
-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은 최근 10년 사이 80% 넘게 증가¹

<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2012, 2022 >



SBS 뉴스(2022. 3. 17)

4. 자녀와의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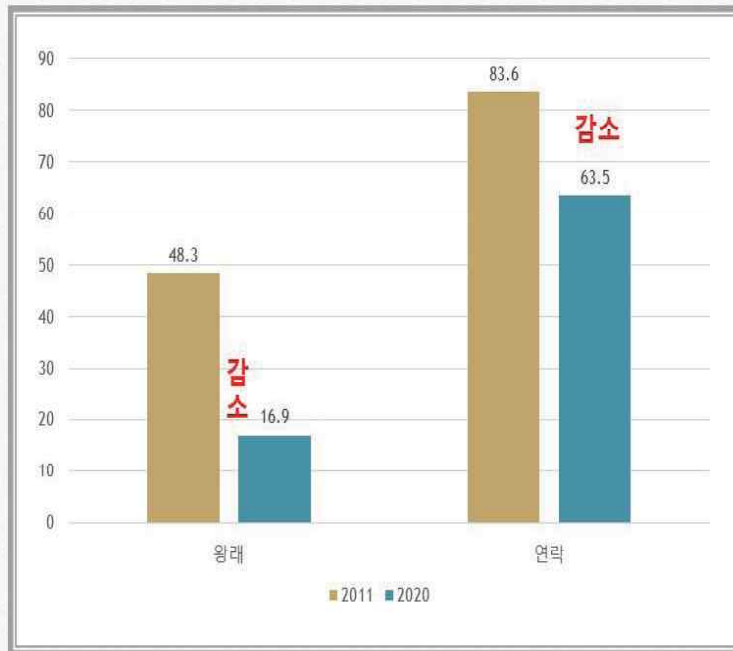
- 자녀동거 감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결속력 약화, 교육, 취업 등으로 가족분거 등의 영향 반영
- 기혼자녀와 동거이유
 - 노인이 필요해서(48%) vs. 자녀가 필요해서(27.1%) vs. 규범적 필요(24.9%)
- 미혼자녀와 동거이유
 - 노인이 필요해서 (27.1%) vs. 자녀가 필요해서 (34.0%) vs. 규범적 필요(38.8%)
-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
 - 자녀의 혼인 후 분가(28.3%)
 - 개인(부부)생활을 위해 (19.9%), 기존 거주지에서 거주희망(18.2%), 경제적 능력(12.7%), 건강(11.2%)

출처: 이선희 (2021). 노인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실태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4. 자녀와의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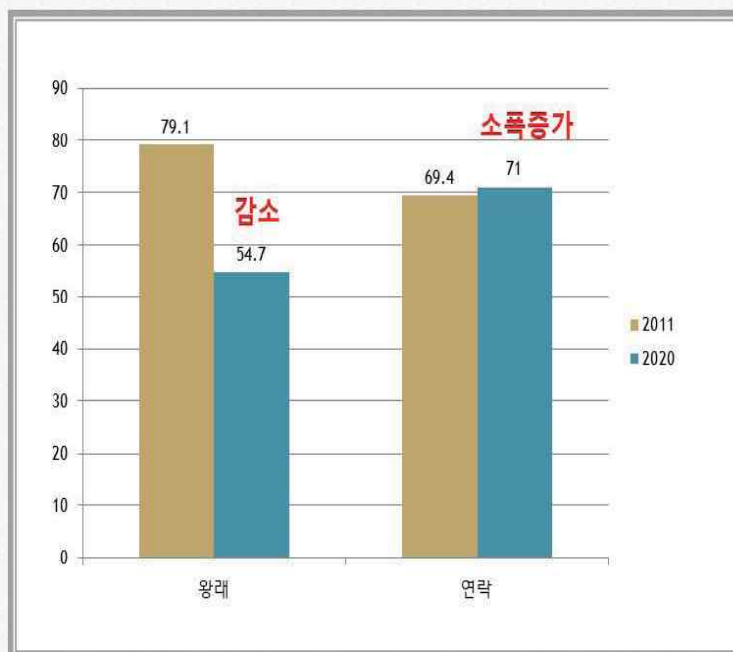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22) 2022사회조사결과, SBS 뉴스 (2023. 2. 27) 중 1:24



노인과
비동거자녀의
왕래 및 연락빈도¹
(주1회이상)

출처: ¹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과
친구/이웃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¹
(주1회이상)

출처: ¹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자녀와의 관계 변화

- 샌드위치 세대인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게서 등장한 새로운 가족형태
 - 고학력자 급증, 계층차이, 삶의 질의 편차로 연결
 -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교육열 → 기러기가족 등의 새로운 분거가족형태 등장
 - 2020년도부터 노년층 진입시작
 -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노후준비 미흡
 - 미국, 일본 등 해외 베이비부머와는 다른 맥락 (평면적 비교의 어려움)
- 베이비붐세대란? 일반적으로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코호트를 지칭함(김용하, 임성은, 2011)

4. 자녀와의 관계 변화

- 고령의 부모. 그러나 여전히 자녀 돌봄의 역할 지속¹
 - 선천성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자녀 양육
 - 다른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음
 - 장애자녀보다 하루만 더 늦게
 - 장애시설에 관한 정보부족, 돌봄을 저버린다는 생각에 죄책감, 불안감
 - 지배적 관점에서 평가된 노인(개인)의 삶: 우울, 외로움
 - 자녀와의 관계 및 개인의 정체성: 선호하는 이야기

¹ 출처: 고정은, 박지혜(2022). 이야기치료를 적용한 노인 집단상담프로그램: 성인발달장애 자녀를 둔 노년기 어머니를 중심으로.

5. 손자녀와의 관계 변화

- 유교의 영향. 손자녀 양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문화권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
- 황혼육아
 - 고령인구비율 증가
 - 맞벌이 가구 비율 증가 ('11) 44.6% → ('21) 46.3%
- 손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자녀의 기대감 증가
-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정적 효과, 부적 효과 혼재
 - 정적효과: 성장을 가까이서 보는 즐거움, 보람, 대화시간 증가(유희정 외, 2015; 이윤진 외 2015)
 - 부적효과: 양육시간이 길수록 우울감 높음, 만성질환 (원서진, 2011),
손자 양육시기 이후 역할상실에 따른 우울, 허무함

5. 손자녀와의 관계 변화

- 노인에게 빈곤탈출의 기능(?) - 개인차
- 다양한 갈등요인 내재 (세대차이, 문화차이, 양육방식, 의사소통방식 등)



출처: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SBS 스페셜(2023. 4. 12) 황혼육아 할머니의 전쟁



사진: 연합뉴스 이세원기자

6. 사회복지적 함의

-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질
 - 생애 마지막 주기인 노년기의 개인에게 가족관계는 삶의 질의 근간이 됨
 - 가족관계의 질은 전 생애를 통해 축적되는 결과물
 - 가족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 노년기 삶의 양상에 차이 발생
- 노년기 외로움, 우울, 불안에 대한 가족체계적 접근 필요
 - 노년기 외로움은 가족 내 소외, 외로움, 소원, 단절이 주 원인이 되기도 함



출처: 고정은(2023). 한국노년학회 내러티브 노인상담 교육 사진: 연합뉴스 이세원기자

6. 사회복지적 함의

- 노인상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¹
 - 기본상담 역량
 - 가족상담 역량
 - 다양한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정책, 제도, 서비스 이해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화, 만성질환, 노년기 성문제, 노년기 정신건강특성(치매 등)에 대한 이해
 -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법적 이해
 - 양도, 상속, 성인후견인, 정서적(물리적)학대 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식
 - 죽음, 죽어감, 웰다잉, 죽음준비에 대한 이해
 - 상실 및 애도상담 역량



6. 사회복지적 함의

- 노인상담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다수의 지역사회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세팅 안에 상담서비스 우선 제공
 - 기관에 노인이 직접 내방 1:1 개별상담(42.4%), 전화상담(55.2%)¹
- 기존의 상담전문가와 연계는 가능한가?
 - 비대면 상담의 효과성²
 - 효과: 전문성 유지, 경제적, 지역사회 내 비밀유지, 외부 전문가 연계

출처: ¹ 권미애·김수진·최성문·박지현·김신경(2019), 인천시 노인상담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어유경, 안수란, 권영지, 고정은, 장유리(2022). ² 비대면 상담의 효과성 개입 효과와 노인 상담 서비스의 중요성으로, 보건사회연구원사진: 연합뉴스 이세원기자

6. 사회복지적 함의

- **노인복지학회 등 학회차원의 노력**
 - 노인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시선, 선입견 개선 노력
 - 노인상담의 정의, 범위 등을 일반인들에게 인식 시키려는 노력
 - 노인 당사자의 상담에 대한 이해, 가족의 상담에 대한 이해
- **공동체로서의 관심**
 - 사회복지사의 노인상담 전문교육 및 훈련 필요
 - 노인(가족)상담 사례발표 활성화
 - 노인(가족)상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발표, 연구모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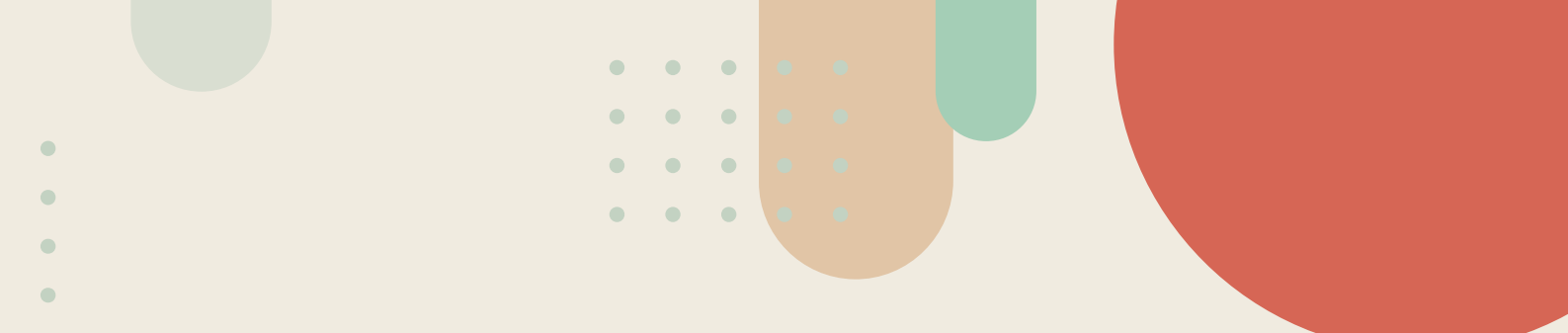
전문학회 세션

[한국노인복지학회]

당사자 관점과
문화적 다양성

좌장

제주국제대학교
민주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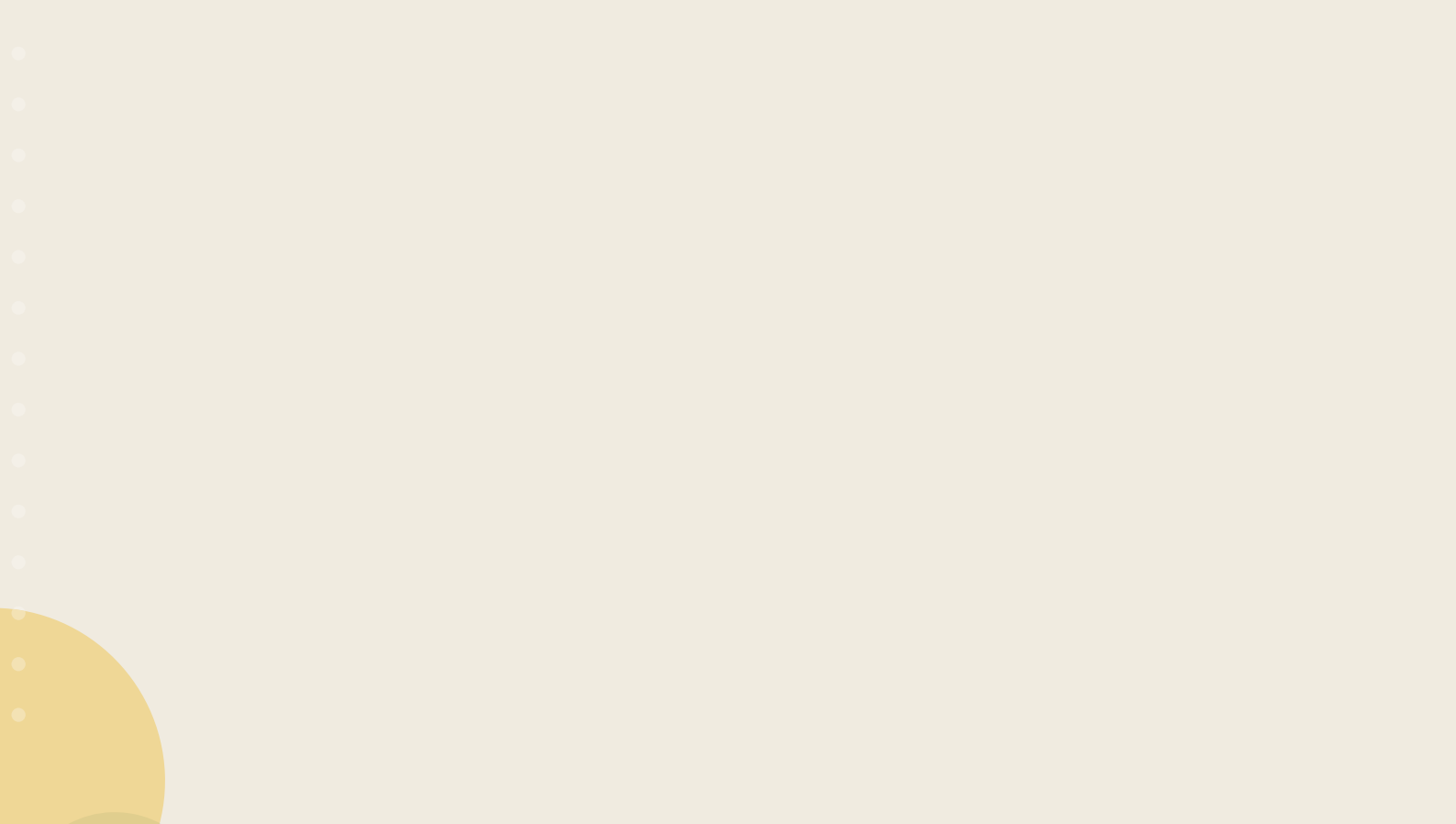


전문학회 세션

[한국노인복지학회]

문화다양성 사회의
고령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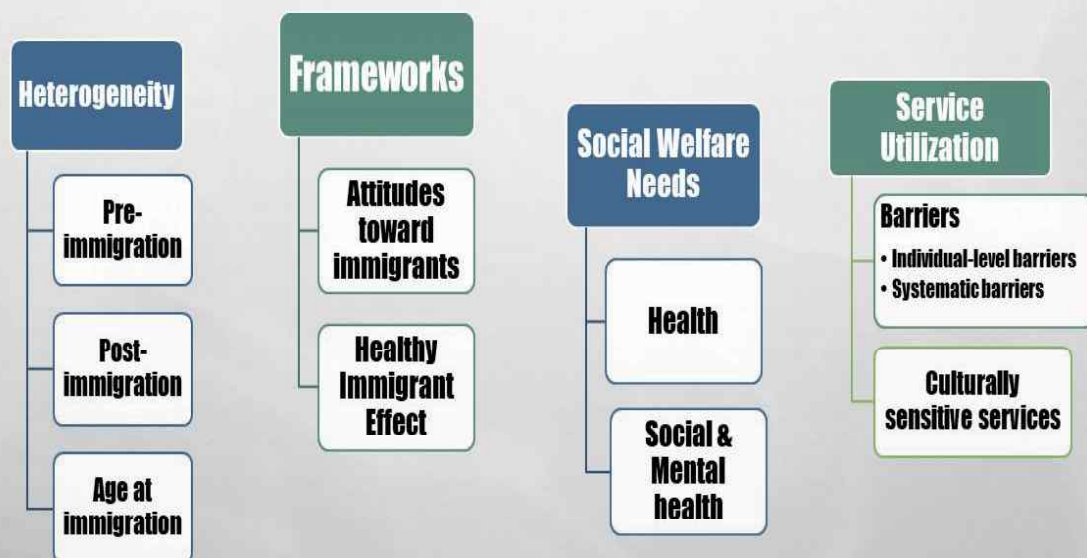
최선하(한국과학기술대)



문화다양성 사회의 고령 이민자

최선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KEY CONCEPTS



DOUBLE, TRIPLE-JEOPARDY

고령 이민자들은 **AGING+MIGRATION**
+MINORITY+GENDER 등 이중, 삼중의
위험을 겪는 집단이라 연구됨.

- “중국동포와 노인이라는 사회적 냉대”
 - “중국 교포에 불합리하고 너무 차별이 많아요. 왜 우리를 그래 괄시【괄시】하느냐고, 이제까지 우리 괄시【괄시】받고 살았어요.”【성치원, 2017】
- “정부지원 정보의 부족”: 코로나 이후 중국교포 노인근로자의 경험
 - “전염병과 관련된 정책과 정보는 친구들에게서 들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줄 몰라요. 노인들은 휴대폰 사용 방법을 잘 모르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은 더 몰라요. 다행이도 딸이 옆에 있으니 물어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서문정, 2021】

국내 고령 이민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음

【예】

박배균. (2010).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89-110.

표 2. 조사지역 및 설문조사 수

지역	설문수
서울	98
경기	34
대구	46
경북	23
광주	35
전남	20
합계	256

연령	무응답	12	4.69
29세 이하	63	24.61	
30~39세	119	46.48	
40~49세	47	18.36	
50~59세	12	4.69	
60세 이상	5	1.17	
합계	25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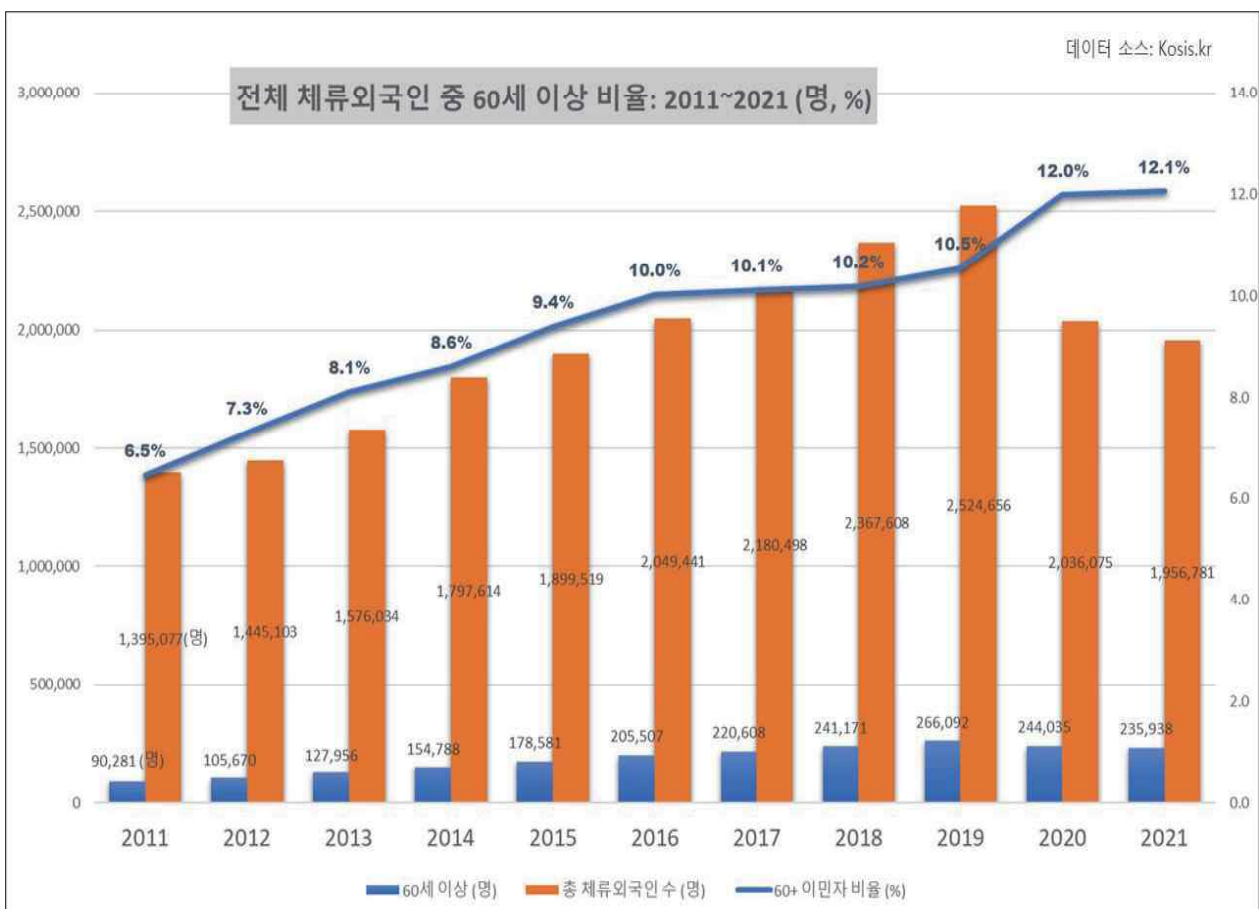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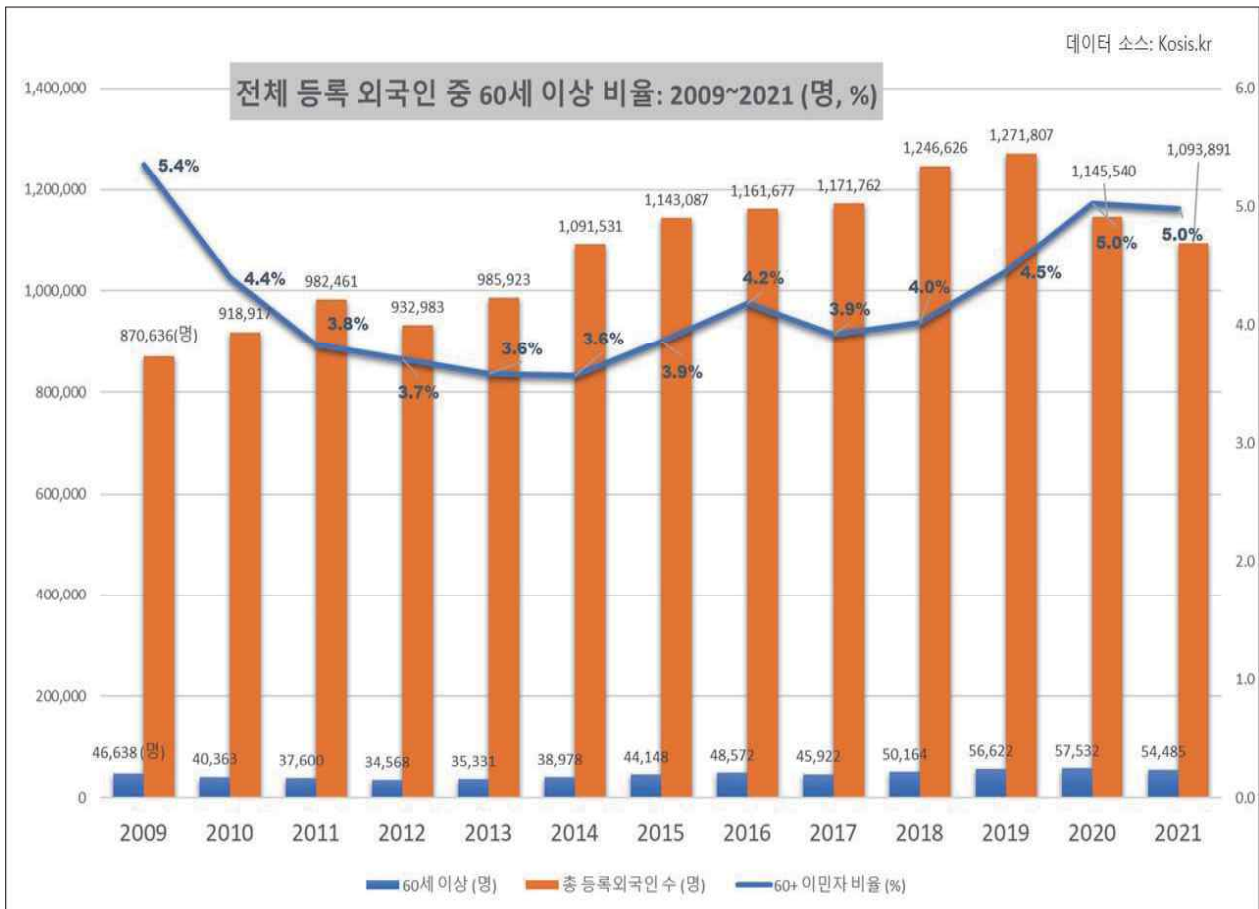
표 8. 종속변수(“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낌”)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Sig.
	B	Std. Error			
상수	3.594	0.051		70.107**	0.000
요인 2: 아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0.430	0.051	0.431	8.363**	0.000
요인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0.237	0.051	0.238	4.621**	0.000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0.222	0.051	0.223	4.329**	0.000
요인 8: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0.207	0.051	-0.207	-4.023**	0.000

R²=0.335, F=31.553**

*: α=0.05 유의도

**: α=0.01 유의도



이민자 내의 다양성
(Heterogeneity)
이해의 중요성

다양성의 요소들:

- **Pre-immigration experience:** 출신 국,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언어, 등
- **Post-immigration experience:** 국내 체류기간, 체류신분, 근로경험, 한국어 구사능력, 문화이해, 거주지역 (ethnic enclaves), 등
- **Process of immigration:** 자발적 vs. 비자발적 이민

미국 이민자들의 법적
체류 신분의 다양성:

- 미국 이민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고령 이민자들의 특성에 영향

- **Non-immigrants** (비이민 외국인)
 - e.g., students, travelers, temporary workers
- **Immigrants** (영주권자)
 - Family-based & Employment-based
- **Undocumented immigrants** (불법체류 외국인)
- **Naturalized citizens** (귀화 외국인)

미국내 한인 고령 이민자의 다양성: 시나리오

Dr. Choi (76)

- 1972년에 도미
-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침
- 학위 후 40여년 간 전문직 근무
-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 활발
-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 모두 독립하여 직장생활 중

The Immigrated Elderly

Mrs. Choi (76)

- 65살이 되던 2012년에 도미
- 2003년에 이민 온 딸과 같이 살기위해 부모초청 통해 이민
- 제한적인 영어 구사
- 가족 외에 사회적 접촉은 제한적
- 일하는 딸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봄

The Invited Elderly
(Late-life immigrants)

Min, P. (1998). *Changes and conflicts: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New York*. Ally and Bacon.

고령 이민자 관련 대한민국 비자/체류신분 (예)

영주 체류자격 (F-5) - 영주자격자

- 2002년 영주 자격 신설
 - 화교 (98.9%) → 중국국적 동포(60.1%, 2021년)의 비율 증가
 -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수여 (3년 이후)
- **고학력자, 고임금자, 투자자, 동포 우대**
 - 취득의 어려움

장기 체류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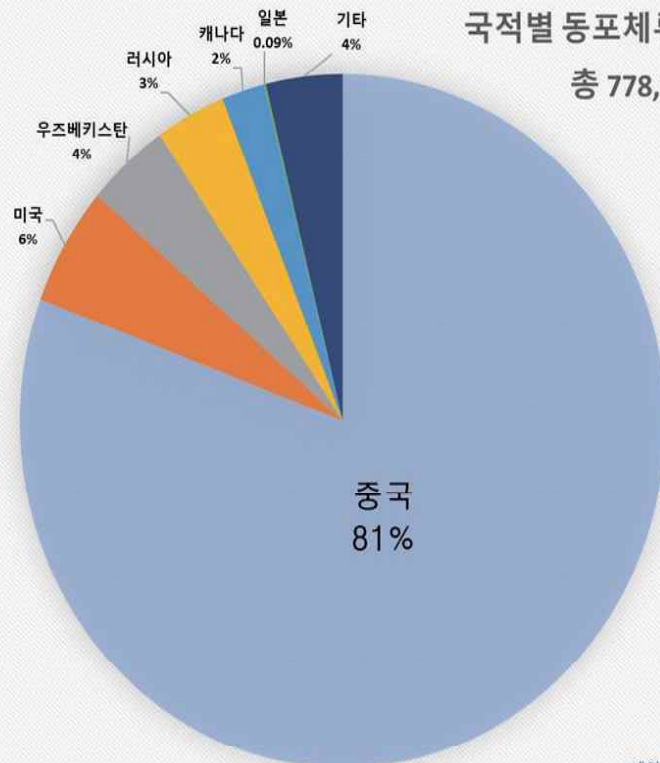
- **F 비자**
 - F1(동거방문비자): 결혼 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초청- 출산 및 육아 지원, 간병
 - 최장 체류기간 & 연장횟수 제한
 - F6(결혼이민자): 국민의 배우자
 - F4(재외동포비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직계비속
 - 러시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 11개국 출신 고려인 동포는 60세 이상

60세 이상 체류외국인 현황: 국적 & 연도별, 2011~2021

데이터 소스: Kosis.kr



국적별 동포체류 현황 (2021):
총 778,670명



데이터 소스: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index.go.kr)

미국 내 중년 아시안 이민자 집단 내 다양성 (건강보험 관련)

향후 국내 고령 이민자 연구에의 시사점

Table 1.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by Race and Asian Ethnicity (Weighted Mean or %, 95% CI; N = 52,763).

	Race		Asian sub-group					
	NHW (reference)	All Asian	Chinese	Filipino	Indian	Japanese	Vietnamese	Korean
Insurance and related characteristics								
Private health insurance (=yes)	78.4	70.2***	73.4**	73.3**	70.7**	83.8	55.7***	55.4***
Uninsured	10.3	16.9***	15.5***	12.2	18.0***	8.4	22.9***	33.3***
Medicaid	3.9	5.6***	6.6**	3.5	7.0**	3.2	10.6***	4.8
Medicare	6.5	3.4***	2.5***	3.4***	2.7**	3.1**	6.7	3.5*
Health insurance offered by employer among the employed ^a	73.2	67.6***	66.3**	77.5*	70.4	78.3	52.3***	39.8***
Health insurance offered by employer among all ^b	49.6	47.3*	46.9	56.0***	49.9	53.6	35.2***	25.9***
Number of hours worked ^c	27.4	28.5*	28.3	29.1	30.2**	27.7	25.6*	27.9
Marital status								
Married	70.8	78.6***	82.1***	73.9	89.2***	65.7	75.2	81.5***
Divorced/widowed	17.8	12.2***	10.1***	16.3	6.3***	14.3	12.8*	12.2**
Never married	5.7	6.1	6.2	5.5	2.5***	14.6***	8.1	4.0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eign born	5.0	82.0***	84.7***	74.7***	98.0***	33.6***	99.6***	97.6***
Age at Immigration (years)	19.4	24.7***	22.1**	26.1***	26.8***	21.9	24.9***	24.0***
Years in the United States	33.3	24.7***	25.1***	25.1***	22.9***	30.6*	22.6***	25.9***
U.S. citizen (=yes)	98.8	80.4***	81.4***	83.2***	75.0***	83.4***	82.0***	75.1***
Age (years)	56.5	56.2***	56.0**	56.4	56.0**	56.5	55.9**	56.2
Female	51.0	52.7**	53.8*	56.0***	44.8***	48.3	49.6	59.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7	11.1***	14.7***	7.0	9.4	3.8*	27.3***	9.8
High school graduate	29.7	22.3***	21.4***	19.9***	16.0***	20.1***	33.2	32.7
Greater than high school	62.6	66.6*	63.9	73.1***	74.7***	76.1***	39.5***	57.5*
Number of health conditions	0.36	0.15***	0.05***	0.21***	0.16***	0.19***	0.20***	0.07***
Self-rated health (1-5)	2.38	2.40	2.35	2.37	2.36	2.42	2.74***	2.35

Data source: The 2007-2011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Sample: 4,628 Midlife Asians (50-64) & 48,135 Non-Hispanic White

Choi, S. (2017). Sub-ethnic and geographic variations in out-of-pocket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among mid-life Asian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9(2), 222-246.

2. FRAMEWORKS

2-1.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유민이 외, 2022)

- **갈등 및 위협인식 (경쟁이론):** 노동시장 경쟁, 재정상황 위협 (국가 재정 부담),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문화에 대한 상징적 위협 등
- **접촉가설:** 직접 접촉 혹은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 접촉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 체류 신분에 따른 이민자의 복지수혜 제한



Immigrant status became the main aspects of the eligibility crit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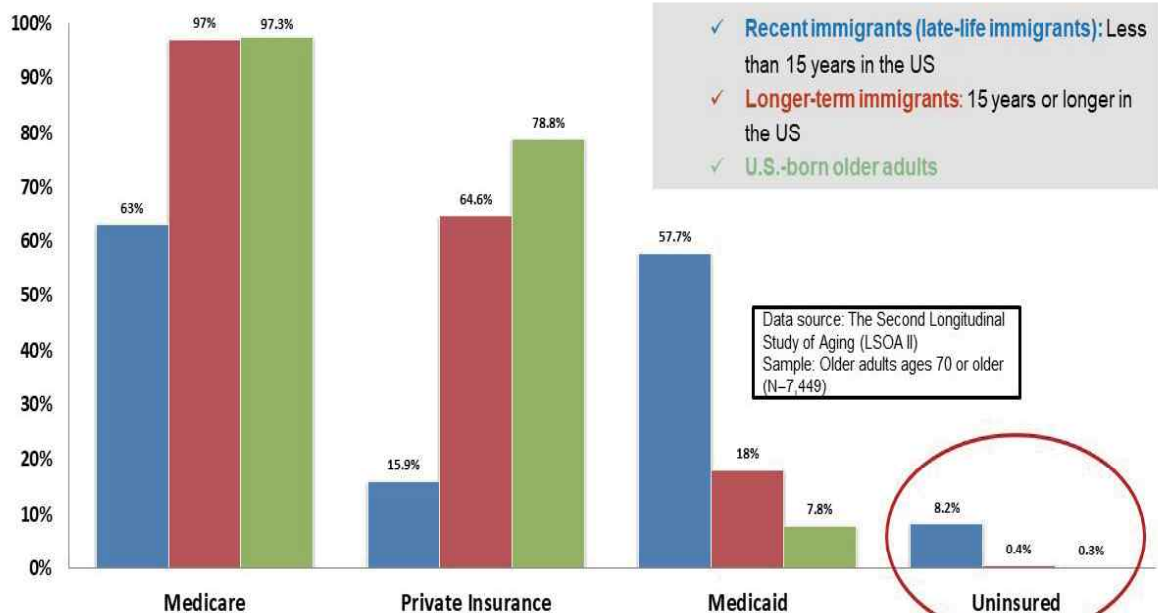


Bars most noncitizens from receiving federal funds for Medicaid, Food Stamps,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Minimum length of stay in the U.S. before being qualified for a citizenship application: 5 years

Insurance Status by Immigrant Status: 미국, 70+



Choi, S. (2011). Longitudinal changes in access to health care by immigrant status among older adults: The importance of health insurance as a mediator. *The Gerontologist*, 51(2), 156-169.

국민건강보험: '먹튀'논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과다한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였거나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혼이민이나 유학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¹¹¹⁾ 이에 따라 영주자격자 역시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무입승차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른바 '먹튀' 논란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법령 개정(2019.7월 시행)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이 국내 거주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영주자격자가 1개월 이상 외국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체류기간이 6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영주자격자의 경우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 적용 대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202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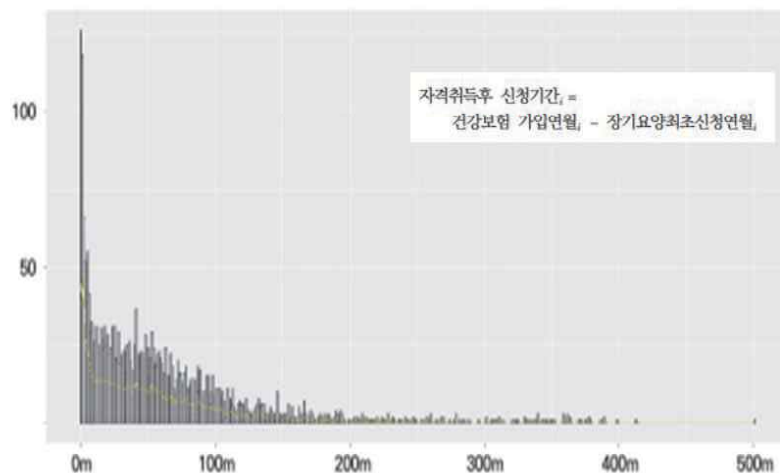
5)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영주자격자 역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만 65세 이상일 경우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담 공무원의 조사 이후 등급에 따라 보장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서종근, 왕영민, 심혜진. (2023).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43(1), 265-281.

그림 5. 건강보험 자격취득 후 인정 신청기간별 등급자 구성



3. SOCIAL WELFARE NEEDS

2-2. Frameworks > Healthy Immigrant Effect (HIE)

- 이민 초기에는 이민자들이 국내 출생자들에 비해 더 건강함 (health advantages)
- 하지만, 이민 기간이 오래될수록 초반의 건강상의 이점(health advantages)이 감소함 (현지화, acculturation)

Healthy Immigrant Effect:

미국의 이민 정책(즉, 건강 관련 배제 요건)과 관련하여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INA) exclusion grounds: Section 212(a)

- (1) People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including STD’s, TB & HIV;
- (2) People w/o documentation of vaccination against vaccine-preventable diseases;
- (3) People w/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that poses a threat to themselves or others; and
- (4) Drug abusers or addicts (Waddell,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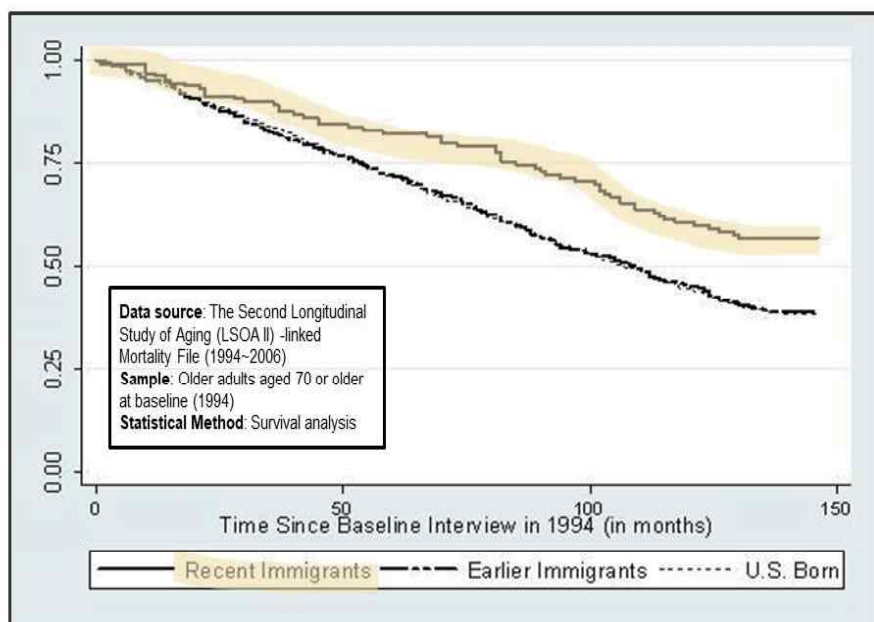
즉,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민 과정에서 걸러지고, 애초에 건강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이민을 택하기 때문에 초반의 건강 차이(health advantages)가 발생한다고 봄.

미국 내 고령 이민자들의 상대적 건강 상태

- 전반적으로 고령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낙담 (no consensus)
 - ✓ General health: Worse
 - ✓ Some specific disease/life expectancy: Better
 - ✓ 이민 후 적응의 어려움: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늦은 나이에 이민을 온 경우 더 높음)
- 고령 이민자들의 “acculturation”의 어려움 (언어, 건강서비스 사용 등)
 - ✓ 이민 기간 경과에 따른 건강 상태의 변화가 젊은 이민자들의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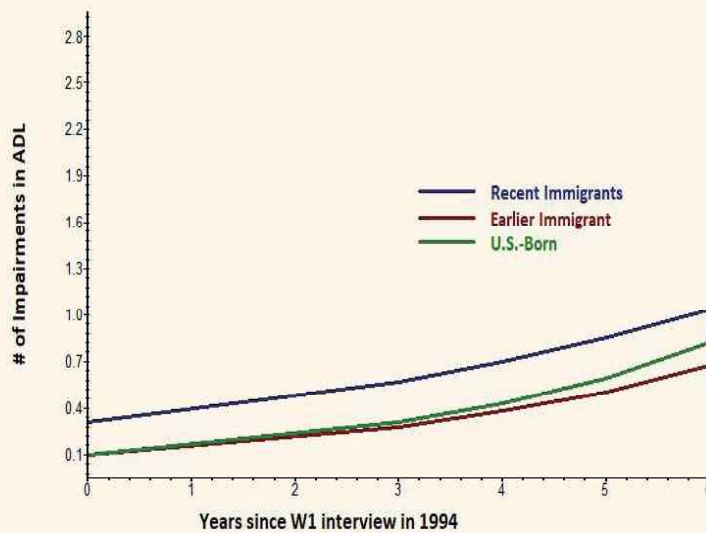
⇒ “Healthy Immigrant Effects” 가 고령 이민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짐

12-year Mortality: Survival Function by Nativity and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Longitudinal Changes: Functional Impairments (ADL)

Data source: The 1994-2000 Second Longitudinal Study of Aging (LSOA II)
Sample: Older adults ages 70 or older
Statistical Method: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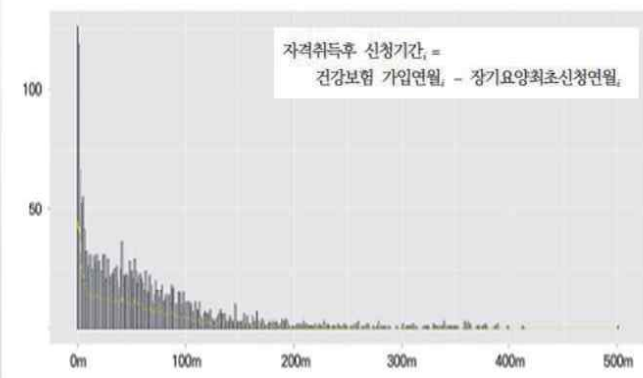
Choi, S. (2012). Testing healthy immigrant effects among late-life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Using multiple indicator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4(3), 475-506.

국내 고령 이민자: HEALTHY IMMIGRANT EFFECT & HEALTH ADVANTAGES?

최초 신청 연월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간 최초 인정신청자를 필터링하였고, 4년간 최초 신청자 중 적정인용자(인정자)로 판정된 외국인 최초인정자 2,768명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외국인 최초인정자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 연월을 추출하여 최초 장기요양 인정신청까지의 개월(月)을 산출하였고, “자격 취득 후 인정신청 기간”의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까지의 기간이 짧은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 자격취득 시점부터 인정신청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인 인정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취득 후 곧바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0개월에 해당하는데 해당 기간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인정 신청하는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이 높았다.

- 서종근, 왕영민, 심혜진. (2023).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43(1), 265-281.

그림 5. 건강보험 자격취득 후 인정 신청기간별 등급자 구성



SOCIAL & MENTAL HEALTH NEEDS

Choi, S., Kim, G., & Lee, S. (2016). Effects of nativity, length of residence, and county-level foreign-born density on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the U.S. *Psychiatric Quarterly*, 87(4), 675-688.

Psychiatr Q (2016) 87:675–688
DOI 10.1007/s1126-016-9418-2

ORIGINAL PAPER

Effects of Nativity, Length of Residence, and County-Level Foreign-Born Density on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the U.S.

Sunha Choi¹ · Giyeon Kim² · Sungkyu Lee³

미국태생, 오래된 이민자들에 비해 미국 생활 15년 미만 이민자들(50+)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남

Data source: The 2004-2007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linked to the Area Health Resources Files
Sample: 50+ in the U.S. (N=29,011)
Statistical Method: Multilevel modeling (individuals < counties)

Table 2 Mental health status among adults aged 50 or older by length of residence and nativity: Weighted mean or % (95 %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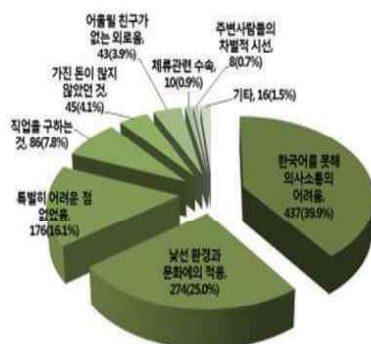
	Recent immigrants (reference ^a)	Earlier immigrants	U.S.-born
K6	4.67 (4.03–5.32)	3.90 (3.64–4.15)*	3.50 (3.40–3.59)**
K6 ≥13 (%)	10.0 (7.4–13.5)	7.2 (6.1–8.4)*	5.4 (5.0–5.8)***
PHQ-2	1.14 (0.97–1.30)	0.91 (0.84–0.99)*	0.76 (0.73–0.79)***
PHQ-2 ≥3	16 (12.8–20.0)	12.7 (11.3–14.3)*	9.6 (9.1–10.2)***
MCS (SF12)	49.55 (48.37–50.73)	50.73 (50.22–51.24)	51.67 (51.46–51.88)**

* <.05, ** <.01, *** <.001

^a Bivariate statistical tests were conducted using Stata's SVY REG and SVY LOGISTIC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with recent immigrants as a referenc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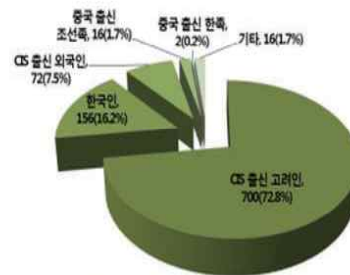
SOCIAL & MENTAL HEALTH NEEDS: 국내 거주 이주민 [예]

〈그림 4〉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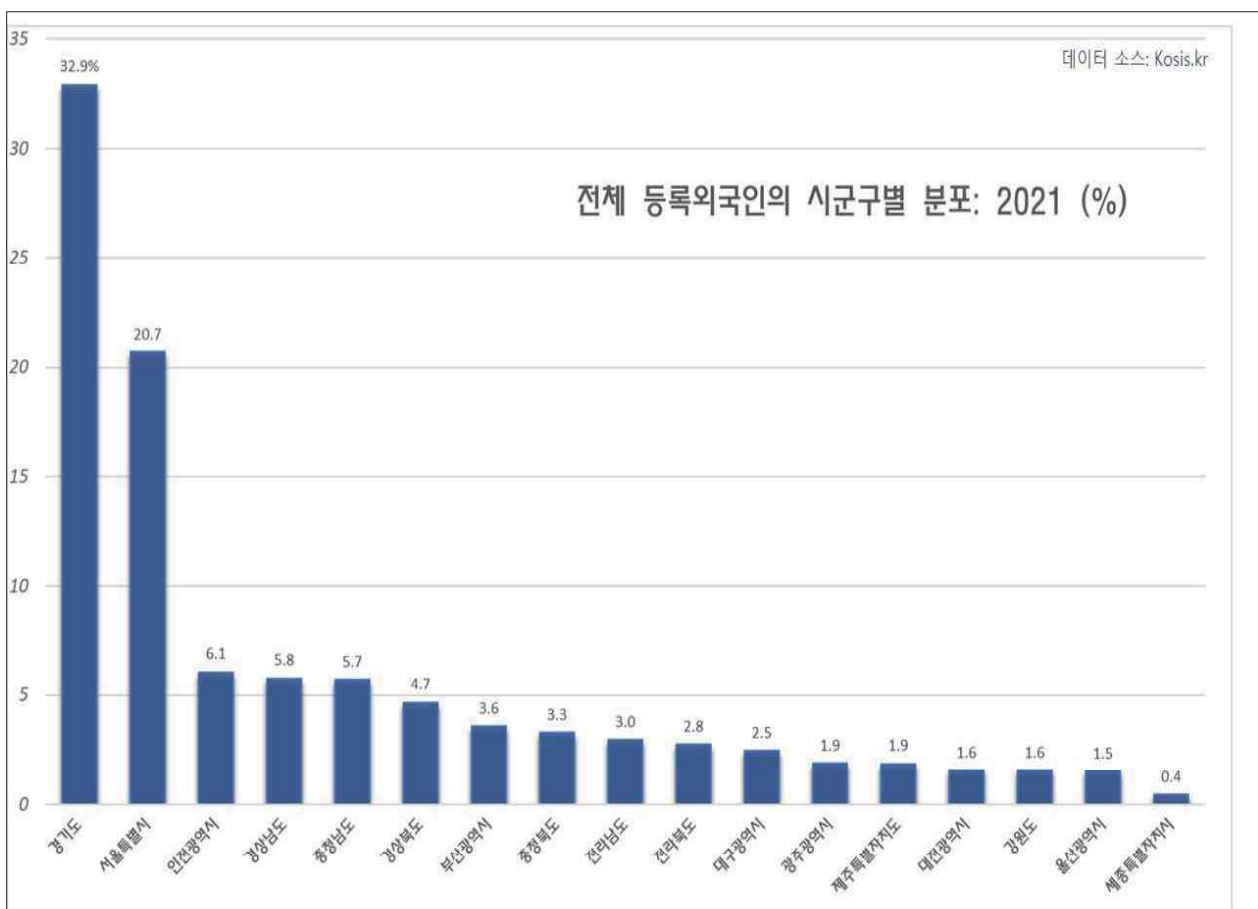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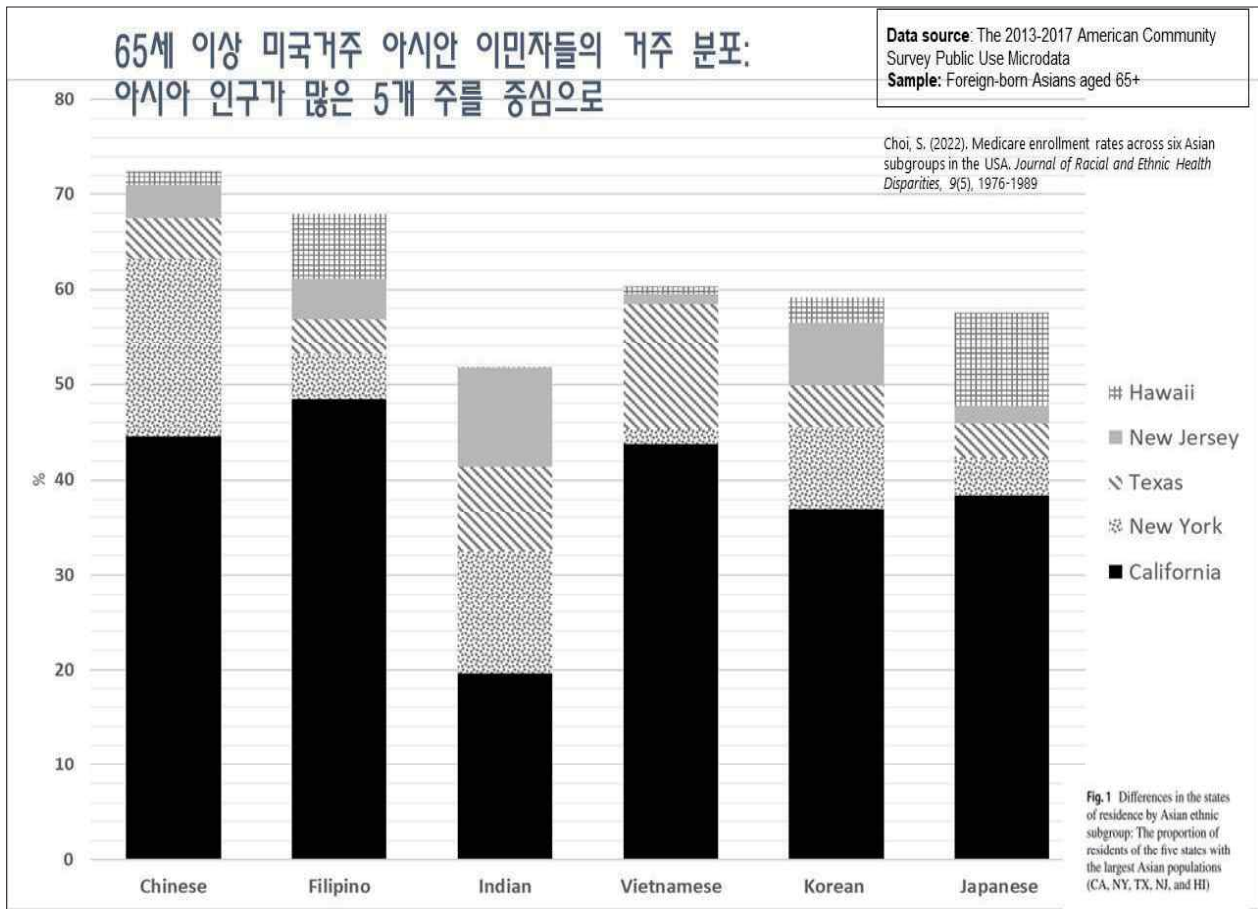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단위: 명)



Ethnic Enclave의
역할에 대한
연구:
inconclusive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II



< 외국인주민 수 1만명 이상 시·군·구 현황(65개)>

(단위 : 명)

연 번	시·군·구	총인구수 (A)	외국인주민 수 (B)	외국인주민 비율 (B/A)
1	안산시	718,384	94,941	13.2%
2	수원시	1,208,337	65,885	5.5%
3	시흥시	554,074	64,570	11.7%
4	화성시	906,381	62,542	6.9%
5	부천시	822,635	53,080	6.5%
6	구로구	426,220	52,433	12.3%
7	영등포구	402,984	50,999	12.7%
8	평택시	571,838	41,240	7.2%
9	천안시	683,888	34,908	5.1%
10	아산시	348,727	32,809	9.4%
11	김포시	491,572	31,651	6.4%
12	용인시	1,067,347	31,138	2.9%
13	부평구	494,641	31,034	6.3%
14	금천구	247,398	30,878	12.5%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1. 11.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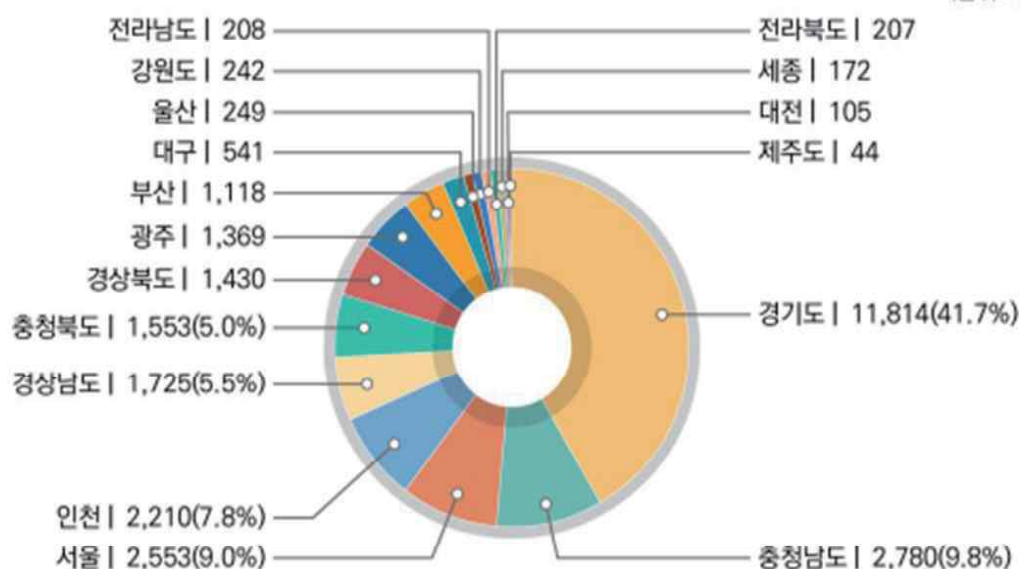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국내거주 러시아 CIS(고려인) 현황조사II

<그림 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사증 소지 고려인 거주지 현황

(단위: 명)



주: 2015년 8월 기준.
자료: 법무부.

오정은, 김경미, 송석원 (2015)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корёсарам

[Home](#)
[센터소개](#)
[게시판](#)
[전시관](#)
[자원봉사 예약](#)

알림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home](#)
 문화센터소개
 [찾아오시는 길](#)



행사

2023년 7월 5일

다문화 놀이 한마당

2023년 7월 5일,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행사

2023년 7월 5일

다문화 놀이 한마당

2023년 7월 5일,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행사

2023년 7월 5일

다문화 놀이 한마당

2023년 7월 5일,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행사

2023년 7월 5일

다문화 놀이 한마당

2023년 7월 5일,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이용안내 및 오시는 길

이용안내(T. 031-493-7056~7)

-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22:00

- ※토, 일요일은 프로그램과 행사 시간에 따라 운영됩니다.

오시는길

-안산역 4호선 하차후

-버스 : 20-1, 5018 탑승후 코끼리마트 정류장 하차

지금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에서는

3. 문화 체험 시장

가. 시장 운영 : 2023년 7월 5일(수)~7월 7일(금)

나. 시장 장소 :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다. 시장 운영 시간 : 10:00~22:00

라. 시장 운영 :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마. 시장 운영 :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바. 시장 운영 :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7. 기념 물건

가. 기념 물건 :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나. 기념 물건 :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다. 기념 물건 : 안산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4. 이용 방법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강사 모집 공고

[Read More >](#)

가족 내의 갈등

- DIFFERENT LEVELS OF ACCULTURATION

- 문화적, 세대적 충돌
- **ROLE REVERSAL**
- 역할의 축소: 아이 돌봄의 역할

- 고령 이민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미국]: 예

- Lee, H. Y., & Eaton, C. K. (2009). Financial abuse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mixed analysis of the role of culture on perception and help-seeking inten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2(5), 463-488
- Chang M. (2016). Experience of elder abuse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J Elder Abuse Negl*, 28(2), 76-94.

4. SERVICE UTILIZATION

*공식 서비스(formal service) 사용 수준이 낮음

*고령 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 저해 요인을 이해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Individual-level barriers
- Systemic barriers

고령 이민자들의 공식적 서비스 사용 방해 요인:

개인적 차원(individual-level)의 장벽:

- 언어
-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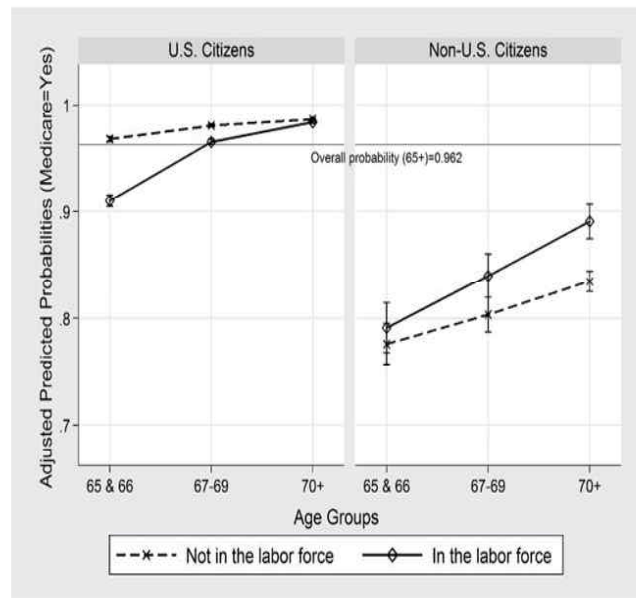
시스템 차원의 장벽:

- 건강보험
- 서비스 제공자 측면: 이민자들을 포용할 서비스의 부족 (culturally competent services)
- 이민자들의 사회서비스 사용에 대한 정책, 등

(예) 미국의 노인 건강보험 (Medicare)
가입 자격 관련 고령 이민자에 대한
systemic barrier와 그 영향 (정책)

Data source: The 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Microdata & Area Health Resources File
Sample: Individuals aged 65 or older (N=566,003)
Statistical Method: Multilevel modeling
(state>individuals)

Figure 2. Adjusted predictive margins by ag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status (95% confidence intervals)



Choi, S. (2021). Non-Medicare enrollees aged 65 or older: The effects of labor-force participation, citizenship, and ag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0(4), 365-376.

CULTURALLY & LINGUISTICALLY SENSITIVE SERVICES

국제
"다시 한국으로?" ...미주 한인 노인들의 '고립감'

2022년 04월 17일 02시 08분 댓글



회관소개

- 인사말
- 연혁
- 직원현황
- 시설현황
- 오시는 길

알로~!! 여기는 사할린동포들의 따뜻한 쉼터이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같은 상처를...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보듬어 드릴 때입니다.

인사말

알로~!! 여기는 사할린동포들의 따뜻한 쉼터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회관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인연으로 동포들이 귀환 후 해방이 되어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반백년을 타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후가 많아진 후 영주귀국 해신 분들입니다.

영주귀국 대상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제1세대로 한성도에서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또 한번의 이산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1999년 3월 제1회에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변화무쌍한 세월의 흔적 속에 인천시민의 성숙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학교·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어르신들은 평화롭고 환한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회관의 모든 직원들은 착신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실감의 마음과 전문적인 시선에서 서비스를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선두에 서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장 박창규

입소자격

알로~!! 여기는 사할린동포들의 따뜻한 쉼터이고 싶습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대한적십자사를 법인으로하고 정부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무료 노인 요양시설로서 그 대상을 일제시대 때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되었다가 고국인 한국으로 영주귀국 한 사할린동포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거주자) 중 질병과 노환으로 혼자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입니다.

입주자격

- 1945년 8월 15일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거주했던 자 (사할린동포 1세)
- 사할린동포 1세의 장애인 자녀 또는 배우자의 경우 사할린동포 2세대 가능

입소 정원 : 90명

연령별 (2022년 11월 현재)

구분	60세 미만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계(명)
남	1	4	5	2	0	12
여	0	10	32	10	1	53
계	1	14	37	12	1	65

성별별 (2022년 11월 현재)

구분	치매	중풍	치매+중풍	파킨슨	근골격계 질환	당뇨	내과 질환	계
연령	22	7	2	2	9	20	3	65

【예】 중국 동포 노인: 세일 경로당

성치원.(2017).중국동포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재해석: 세일 경로당을 중심으로.민속연구,35,143-173.

- 중국동포 밀집지역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금천구 가산동)의 생성과 확장:
 - 중국 동포의 이주 역사와 SOCIAL CAPITAL 축적 과정
- 중국 동포의 고령화: 경로당 이용에 관한 연구
 - 금천구 세일 경로당- 2014년 개관.
 - 원주민 중심의 기존 경로당에 섞이기 어려움 (문화적 차이, 차별) → 자조적인 성격으로 출발 (INFORMAL)
 -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단편적이고 통상적 (“돈벌이 하러 온 사람”)
 - 국적, 체류신분 등에 따라 회원자격 제한되기도 (중국국적, 불법체류자, 노숙자)
 - 기능: 봉사활동, 친목, 영양, 여가, 전문성 나눔

5. 앞으로의 과제

1. 고령 이민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현장 수요 반영 (언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등)
2. 부처 간 업무 협력과 이해 증진: 서비스 모델 개발
3. 국내 고령 이민자들에 대한 학문적 이해 증진: 다양성과 정책적 함의 연구
4. 고령 이민자 통계 관리 강화: 국가 통계/national surveys (이민자 관련 변수 포함) - (예) 외국태생 여부, 국내 거주 기간, 출신 국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구분	내용
관련기관	법무부(이민통합과)
개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전문인력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행직무	•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용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수료증 취득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가·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제3호 가족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취득과정: 학점 이수(30학점) → 학사학위 취득(전공우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법무부 주관)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대학 총장 명명) (※ 2021년 2학기까지 등록(입학)하고 2021년 2학기까지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계절 전 규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필수 5과목 포괄 8과목으로 과점 이수 가능함.)
과정개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 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https://www.cufs.ac.kr/contents/contents.do?cidr=1702&menuid=4388>

이성순, (2011).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논문집* 10, 241-267.

양미경, (2017).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타문화*, 56(0), 279-300.

이민정책연구원

I 주요활동



• 교육사업

- 이민정책 현장전문가 양성
- 국내이주 및 다문화 관련 정책 입안자, 실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구 보고서: 예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2022)
- “이민경로별 국내 영주이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2022)
- “국민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22)
-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 II”(2015)
- “다문화사회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화 방안”(2020)

[그림 2-6] 다문화 외국인 민원서비스 공급 체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2017) 보도자료 2017. 9. 9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운영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대상의 공공서비스 공급창구를 일원화하여, ① 시설·인력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해 기관 간의 비효율을 제거함은 물론이고 향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과 체류관리·고용허가 등의 정착지원 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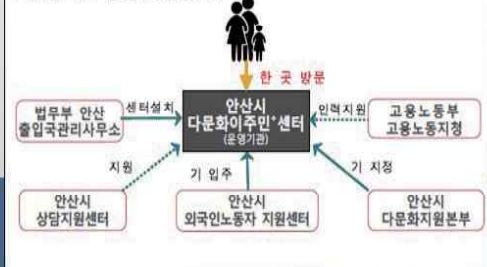
[그림 2-7] 다문화 외국인 민원서비스 공급 체계 개선방향



출처: 행정안전부 (2017) 보도자료 2017. 9. 9

○ 『다문화이주민+센터』는 2017년 아산시에 시범 설치한 이후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공간통합형과 기능추가형으로 시범운영 중임

* (예시) 경기 아산시(공간통합형)



미국 내 고령 한인 이민자에 대한 연구: Jang et al. (예)

- Jang, Y., Park, N. S., Park, J., Chiriboga, D. A., Haley, W. E., & Kim, M. T. (2023). The mental health benefit of friend networks in older Korean Americans: The conditioning effect of family typ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8(1), 143-153
- Jang, Y., Kim, J., Yoon, H., Park, N. S., Chiriboga, D. A., Rice, E., & Kim, M. T. (2023). Older Korean Americans' perceived burdensomeness to their healthcare partners: An egocentric network assessment. *Journal of Aging and Health*, 35(1-2), 6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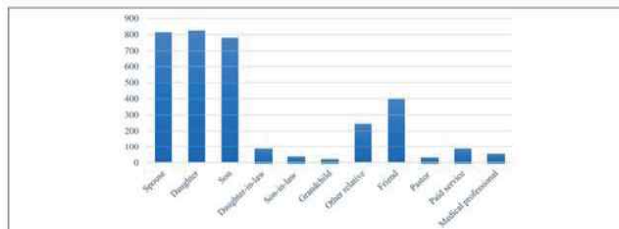


Figure 1. Frequencies of the relation of the enumerated healthcare partners (n = 3402). Note. Older adult participants were asked to name up to three individuals whom they usually asked for help on health-related matters or healthcare use (i.e., healthcare partners).



Research Article

The Mental Health Benefit of Friend Networks in Older Korean Americans: The Conditioning Effect of Family Type

Yuri Jang, PhD,^{1,*} Nan Sook Park, PhD,^{2,*} Juyoung Park, MSG,¹ David A. Chiriboga, PhD,³ William E. Haley, PhD,⁴ and Miyong T. Kim, PhD⁵

¹Edward R. Roybal Institute on Aging, Suzanne Dworak-Peck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USA; ²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FL, USA; ³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FL, USA; ⁴School of Aging Studie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FL, USA; ⁵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X, USA.

*Address correspondence to: Yuri Jang, PhD, Edward R. Roybal Institute on Aging, Suzanne Dworak-Peck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689 West 34th Street, Los Angeles, CA 90089-0411, USA. E-mail: yuri@usc.edu

Received: December 21, 2021; Editorial Decision Date: July 30, 2022

Decision Editor: Markus Schaefer, PhD

Abstract

Objectives: We identified types of family relationships of older Korean Americans and examined how the mental health benefit of friend networks might be conditioned by family type.

Methods: Data were from 2,070 participants in the Study of Older Korean Americans, a multistage survey of Korean immigrants aged 60 and older ($M_{age} = 73.1$, standard deviation [SD] = 8.01). To identify family types,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as performed with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 family network, positive and negative interactions with family members, and family mistreatment. Linear regression models examined how mental distress was associated with friend networks and family types, as well as their interactions.

Results: LPA identified 5 family types: *close-knit*, *intimate but distant*, *detached*, *connected but dysfunctional*, and *dysfunctional*. Greater distress was associated with smaller friend networks and belonging to the *detached*, *connected but dysfunctional*, and *dysfunctional* family types in comparison to the *close-knit* type. The interaction model showed that people in the *connected but dysfunctional* and *dysfunctional* groups had a stronger association between friend networks and mental distress than the counterparts in the *close-knit* group.

Discussion: We not only confirmed the health-promoting role of friend networks and the value of a close-knit family but also found that the benefit of friend networks was pronounced when quality of the family relationship was impaired. Our findings called renewed attention to older immigrants' social convoys of family and friends, suggesting that the enhancement of friend networks could be particularly advantageous for older immigrants with dysfunctional family relationships.

Keywords: Asian Americans, Family relationships, Friend network, Mental health, Older immigrants

참고문헌 (발표자 논문 제외)

- 서문정. (2021).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중국동포 노인근로자의 한국생활 변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종근, 왕영민, 심혜진. (2023).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43(1), 265-281.
- 양미경. (2017).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탐라문화*, 56(0), 279-300.
- 오정은, 김경미, 송석원.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 II.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보고서.
- 유민이 외. (2022). 국민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민정책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 이성순. (2011).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41-267.
- 최서리 외. (2022). 이민경로별 국내 영주이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 한부영, 김필두. (2018). 외국인주민 민원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Jang, Y., Park, N. S., Park, J., Chiriboga, D. A., Haley, W. E., & Kim, M. T. (2023). The mental health benefit of friend networks in older Korean Americans: The conditioning effect of family typ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8(1), 143-153
- Min, P. (1998). *Changes and conflicts: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New York*. Ally and Bacon.